

<2018년 6월 10일 주일말씀>

사연을 들어 보아라

본 문 민수기 27장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1. <사연>을 들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다.
2. <사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로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다.
3. <사연>을 안 들으면, 봐도 모른다.
4. <사연>을 들어 보아라.
5. <월명동 자연성전>을 인테리어 하는 중에 하나님은 “<사람 조각상>을 사다 놓자.” 하시어 조각상을 찾고 있었다. 그중 한 곳에 ‘실감나게 만든 조각상’이 있어서 그 주인과 대화하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섭리사에 와서 몇 번 교회를 다녔다고 했다. 그리고 20년 전, 월명동 호수 팔각정의 이상세계 조각을 할 때 선생이 자기에게 면담을 해 줬다고 하며, 그때 선생이 “조각가가 되려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조각을 전공해라.” 하고 말씀해 준 대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조각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꾸

준히 조각을 해 왔다고 했다. 그에게 조각상에 대해 물으니, 10년 전에 한 스님이 이탈리아에 가서 최고로 좋은 대리석을 사다 주면서 그 돌로 ‘부처 조각’을 해 달라고 하기에 돌 조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그 스님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고로 그 돌로 ‘부처 조각’을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심혈을 기울여 몸부림의 조각을 했다고 했다. 특히 큰 돌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크게 만들어서 집 뒤쪽에 숨겨 놓고, 힘들 때마다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고로 이 조각 작품은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생에게는 팔겠다고 한 것이다. 고로 선생이 그에게 말해주기를, “이 조각 작품은 하나님께서 너를 쓰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네가 만든 조각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듯이, 너도 와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했다. 그러니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하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또 말해주기를, “네가 20년 동안 교회에 안 나올 때, 하나님은 이 조각상을 만들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선물 하나라도 만들어 와야 하기 때문이다. 고로 이 조각을 하나님 보좌 옆에 놓지 않았느냐.” 했다.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조각은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만들었다. 최고 좋은 돌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 올 조각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하셨다.

6. <사연>을 들어보니, 선생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들게 해 달라고 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7. 저마다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다. <월명동에 들어온 조각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은밀히 행하심’을 깨닫고, 또 ‘주를 감동시켜 가져 오게 하심’을 깨달아라.

8. <사연>을 들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은밀한 것들을 알게 된다.

9. <한 가지 사연>을 통해 ‘백 가지, 천 가지의 사연’도 들어 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다.

10. <월명동에 들어오는 특이한 돌들>은 모두 ‘사연’이 있다. 이와 같이 <섭리사 사람들>도 ‘섭리사에 오게 된 사연들’이 있다. 그 사연들이 ‘월명동에 들어온 조각상의 사연’과 같다.

11. <구시대의 존재, 우상의 존재>가 될 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틀어서 ‘새 시대’로 오게 하시고, ‘시대 신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라.